

1970년대 한국 포크(folk music) 음악의 전설 고(故) 김진성 PD

김형준*

1. 머리말

1970년대 한국 포크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김진성 전(前) CBS PD가 2023년 5월 19일에 향년 86세로 영면(永眠)했다. 그는 KBS, TBS, MBC를 거쳐 CBS 라디오 PD로, ‘영 840’, ‘세븐틴’, ‘꿈과 음악 사이에’, ‘올나잇 팝스’와 같은 음악 전문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당시 인기를 얻었던 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민기, 한대수, 양희은, 방의경, 이정선, 조동진, 이동원, 이주호, 어니언스, 강인원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요계 스타들이 방송에 입문했다.

K-Culture 융합연구소에서는 김진성 PD가 살아계실 때,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대중음악계의 상황은 물론, 김진성 PD 본인의 생애사(生涯史)를 정리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 그를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이 내용은 2022년 10월 18일 자택 부근에서 진행된 인터뷰의 일부이다. 본 녹취록을 통해서 그가 PD가 된 과정, 당시 가요계의 정황, 레코드사의 상황, 제작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 등을 알 수가 있다. K-Culture의 원조격인 고인의 명복을 지면을 통해서 다시 기원하며, 이 내용 또한 한국대중음악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본 학술지에 그대로 구술 녹취록을 게재하기로 한다.

* 현재 대중음악공연 전문 기획사인 비전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을 맡고 있으며 강원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전 CBS PD 겸 진행자로서 한국 음악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 공동으로 펴낸 『경기도의 대중음악/음반문화 관련 아카이브』(보고사, 2013) 등이 있다. dancible@naver.com

2. 김진성 PD와의 인터뷰 구술 녹취록



사진1. 김진성 PD의 생전 모습

김형준: 선배님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주로 그동안 해오셨던 일을 중심으로요.

김진성: 처음에는 내가 KBS 전신이었죠. 남산에서 있을 때 라디오에 조금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KBS TV로 옮겨서 한 3년 일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TV, TV로 옮겨서 3년 일했고, 그리고 MBC TV 가서 개국 사무실에 가서 한 1년 일했고, 그리고 중앙일보 사업부에 가서 한 3~4년 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타운에서 DJ를 좀 하다가 CBS에 가서 20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CBS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TBC로 다시 가서 라디오 가서 좀 일 좀 했고, KBS 라디오에 가서 좀 일 좀 했고, 그리고 SBS로 가서 일 좀 했고, 주로 게스트로 SBS에서 한 2~3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KBS TV 자문으로 가요무대 하고 있어요.

김형준: 처음 맨 처음에 이 음악 쪽에 일을 시작하게 된 그때가 몇 년도쯤에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김진성: 처음엔 KBS 라디오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내가 사실 거기 가게 될지도 몰랐어요. 내가 원래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드럼을 쳤는데 드럼을 잘 쳤어. 그래가지고 오늘 카바레에서 인천 카바레 쪽인데 일 좀 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카바레에 가서 일을 하냐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근데 보니까 뭐 트로트 쪽으로만 일을 드럼을 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 좀 했어요. 근데 같이 일하던 밴드 중에 트럼본 주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KBS에서 PD였던 거예요. 트럼본 부는 사람. 그 사람이 날 보고 하루는 소주 한 잔 하자고 날 데리고 나가더니, 너 젊고 그런데 나랑 같이 일 좀 해볼 생각 없냐?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방송국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방송국을 KBS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가수들한테 일일이 주소지를 갖고 찾아 갔어 하려면 섭외하려면.

김형준: 몇 년도?

김진성: 그때 《군 위문 열차》인데.

www.kci.go.kr



사진2. 김진성 PD가 기획했던 Y청개구리 마당(출처: 조선일보)

김형준: 몇 년도길래 전화도 안 댔어요?

김진성: 그게 60년대 초반이지.

김형준: 전화 없어서 직접 일일이 방문 섭외했다는 그런 얘기사죠?

김진성: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거지.

김형준: 그렇게 이제 시작을. 그러면 그때는 정식 PD, 아니 그냥 AD같은 그런 거였나요?

그분 트럼본 주자분 옆에서 그분이 PD라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방송 일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PD로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되신 건 그로부터 몇 년 지나셨어요?

김진성: 많이 지나지.

김형준: 한참 뒤에요. TBC 가서서도 그러면?

김진성: TBC 가서는 조금씩 했지.

김형준: PD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KBS에서도 PD를 하긴 하신 거고요?

김진성: 그거는 안 했어요. 그건 아이지.

김형준: AD만 하셨고 TBC로 가신 다음에 PD를?

김진성: 그건 KBS에서 PD한 적이 없었어.

김형준: 얘기해 주실 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저희와 관련된 것만 그냥 좀 여쭙볼게요. 음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고 가수들을 많이 만나셔서 음반 관계자들이나 다 만나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주제가 경기도에 크게 사업장을 두고 있었던 그런 음반사들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이거든요. 보니까 지구레코드하고 오아시스 레코드가 1960년대 70년대 이 때 전성기로 거의 양대 산맥처럼 전속 가수들을 데리고 가요계를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얘기를 좀 아시는 대로 좀 듣고 싶은데요.

김진성: 근데 그게 내가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오아시스하고 지구레코드가 우리나라 온 레코드판을 다 지고 있었어. 트로트 쪽으로는 오아시스. 근데 조금 그것보다 하이레벨은 지구레코드. 이렇게 둘로 나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레코드는 수준 있는 작곡가나 가수들은 스카우트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스카우트 했고, 그렇다고 지구레코드가 오아시스가 가수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이레벨. 조금 그때 당시에 하이레벨의 가수들이 주로 지구에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지구 임 사장하고 인연이 다 가지고 이제 지구 임 사장하고 가끔 만나서 아주 음악적인 조언을 많이 했어. 근데 했는데 그거 좀 쪽팔리더라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특 하면 뭐 밥 먹었어? 그러면 임 사장이 좋아하는 초밥집이 있어요. 초밥집에 와서 초밥 사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 내가 꼭 PD인데 내가 거기 가서 밥 얻어먹는 게 아주 진짜 쪽팔리더라고.

김형준: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만나러 보통 가시면?

김진성: 저기 광화문에.

김형준: 광화문 사무실로요.

김진성: 아니, 사무실은 저기 파주 쪽에 있어.

김형준: 예, 대자리?

김진성: 대자리 거기 있었고, 지금 임 사장이 직접 나와서.

김형준: 그러니까 식당에서.

김진성: 그래 가지고 뭐 가끔 가서 조언하면 용돈도 이렇게 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쪽팔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참인데, 내가 CBS에 있으면서 뭘 했냐하면 《송 페스티벌》이라는 걸 기획을 했어. 그게 이제 남이섬 사장. 그때 남이섬 사장이 누구였냐면 오너가 한국은행장이었어요.

김형준: 한국은행장?

김진성: 한국은행장. 한국은행 은행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 은행장에다가 휘문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김형준: 이분이 뭐 《송 페스티벌》과 관련이 있는 분이세요?

김진성: 날 보고 오 사장이 밥 먹으러 좀 가자, 어디 갈 때 있어 어딜 가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만나는데 같이 가자는 거야.

김형준: 임 사장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김진성: 임 사장이 아니라 그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장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는

데, 그 오 이사장이 나를 이제 소개를 했어. 이 친구가 좀 많은 가수들을 데뷔시키고 막 그랬다고 나를 소개하고.

김형준: 혹시 오 무슨 이사장이신지?

김진성: 오재경, 오재경.

김형준: 저기 CBS 사장님이시죠?

김진성: 문화공보부장관도 하고, 그 양반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 그래서 부탁이 있다고 우리 남이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나?

김형준: 남이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좀 활성화 하고 싶단?

김진성: 그래서 이제 내가 기획을 했는데, 《송 페스티벌》이라는 걸 기획을 했어. 그러가지고 내가 혼자서 하면 그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PD들을 동원을 했어. 동아방송, MBC, TBC 이렇게 아는 PD들을 전부 초청을 했어. 그래 가지고 내 계획을 얘기를 했어. 이렇게 다 친분이 있으니까 매일 술 먹는 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좀 도와 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기로 하고 내가 이제 그 주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름다운 강산》을.

김형준: 남이섬 송페스티벌의 주제가로 《아름다운 강산》을 의뢰하신 거예요?

김진성: 내가 신중현이 불러가지고 야 이거 곡 좀 써라 그러가지고.

김형준: 여기 쓸 걸로 일단?

김진성: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가 나온 거야. 그리고 포스터를 누가 그랬냐면 미술협회 회장 이었는데 지금 미술협회 회장 안 하는 거 같아. 그 사람한테 내가 포스터 좀 그려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송 페스티벌》 포스터를 멋있게 그렸어. 그래서 전 서울에다가 다 그걸 붙였어.

김형준: 남이섬 《송 페스티벌》인가요? 몇 년도쯤이예요?

김진성: 기억이 안 나네.

김형준: 한 60년대 후반 70년.

김진성: 내가 CBS 있을 때니까.

김형준: 70년대인가?

김진성: 그거 고영수한테 물어보면 잘 아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잖아 주제를 그래서 성음 레코드 사장을 이성희 사장을 내가 잘 아니까 이성희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녹음할 일이 있는데 제작비가 없다고 이거 좀 하는 녹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중현 밴드 데리고 가 가지고 거기서 녹음을 했어.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남이섬 송 페스티벌
來 3 日 부터 아 마 競 演 大 會 結 合

남이섬 송 페스티벌이 8월 3일부터 10일까지(매일 13시~24시) 열린다. 아 마류어 그룹사운드 및 포크싱가연대회를 겸한 이 번 축제에는 鄭鴻澤, 金 儉生, 崔東旭, 申東雲, 李 映錫 등 MC 陣과 任熙淑, 羅勳兒, 朴시스터즈, 張美花, 李洙美, 朴健, 鄭美朝, 李玄, 朴尼걸즈, 鄭亨柱, 徐西錫, 楊姬銀, 徐 拉고, 尹 民어운, 인디안들에 守男, 河清, 趙英男, 趙 錫스, 키보이스, 히트걸즈 등 가수들이 출연한다. 「러스티의 友情」 ★KBS「올림픽 리미」 25일(火) 저녁 6시 30분

演 芸 大 會

의 KBS 텔레비전「올림픽 리미」는「러스티의 우정」편이다. 아메리카를 자 정「편이다. 아메리카를 자 기네 조상 때부터의 땅이 라고 믿어온 인디안들에

사진3. 남이섬 송 페스티벌 기사(출처: 조선일보)

나, 나 사장을 만났어. 그게 그 하여튼 나 사장을 만나서 나운영 씨 조카요. 작곡가 나운영 씨의 조카인데 거기서 스타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사장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좀 믿음직스럽더라고 음악도 많이 알고 내가 가수들 데려올 테니까 제작을 하라고 제작을 해야지 돈을 벌지 이거 해가지고 돈 못 번다고.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을 아직 《송 페스티벌》 끝나고도 계속 꼬셨어.

김형준: 《송 페스티벌》 그거 주제곡 녹음하러

고 이제 가서 알게 되셨는데 끝나고도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도 그분하고 계속 이제 그렇지 교류를 하셨다고요?

김진성: 그래서 내가 그러기 전에도 제작을 내가 은하수라는 레코드를 빌려가지고 김민기 제작하고 이동원 제작하고, 이동원이 지구에서 제작했지. 그리고 뭐 원 플러스 원이고 뭐 이렇게 가수를 제작을 했었어. 내가 세 개를 그 다음에 뭐 많이 했는데 잊어버렸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 사장을 꼬셨어. 난 기존 지구하고 오아시스 상대하기 하기가 싫어서.

김형준: 음악적으로 안 맞아서?

김진성: 안 맞지.

김형준: 다 트로트만 하고.

김진성: 나 나 사장을 꼬셔가지고 이제 통키타를 꼬셔가지고 다 글로 보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버니까.

김형준: 그때 나 사장님은 그 레코드사 음반사 이름이 뭐 있었을까요?

김진성: 있었지.

김형준: 무슨 이름이었어요?

김진성: 이장희. 내가 처음 데리고 왔는데 이장희야. 그거는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윤형주, 송창식. 다 거기서 만들었다. 거기서 했어.

김형준: 무슨 레코드사죠? 거기는?

김진성: 그 처음에는 성음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서.

김형준: 서라벌도 아니고.

김진성: 그거 뭐더라 보면 알아 그 통키타 거기서 다 했어.

김형준: 그러니까 지구하고 오아시스가 아닌 레코드사인 거죠?

김진성: 그거 했는데 내가 또 관여했던 레코드가 있는데 킹 레코드야. 거기 있는데 킹박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야.

김형준: 나 사장님? 나 무슨 사장님이죠? 이분이?

김진성: 나현구, 나현구.

김형준: 나현구 사장님하고.

김진성: 그 사람 돌아가셨어.

김형준: 나 사장님하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수들이 막 와서 음반이 잘 되니까.

김진성: 이제 킹박이 열 받은 거야. 킹박하고도 조금 인연이 있었거든. 근데 나한테 하루는
전화가 왔어 뭐라고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나하고 너 이따 보자. 이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누구누구 있었냐면 서유석, 양희은, 이문세.

김형준: 킹박하고 만날 때요 아니면?

김진성: 만날 때 내가 거기서 만든 게 이제 영사운드.

김형준: 킹 레코드랑 해서 만든 게 영 사운드라고요. 나현구 사장님하고 할 때 거기서는
또 이장희 씨나 그런 분들.

김진성: 그건 이제 나현구가 거의 다 만들었어.

김형준: 그쪽에서 그리고 이쪽은 선배님이 제작하는 데 같이 관여를 해서?

김진성: 그리고 또 내가 뭘했냐면은 화천공사라는 영화사가 있어. 화천공사에서 이장호가
한 게 뭐지? 이장호가 히트하는 거 뭐더라? 영화 하여튼 그건 내가 음악 감독. 그 유명한
게 있잖아 대표적인 거? 그래서 사실 내가 영화 뮤직 감독을 했어.

김형준: 거기에 음악 감독이요.

김진성: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내가 뮤직디렉팅한 게 한 여러 개 작품이 있었어요.

김형준: 음악 감독으로 영화 음악 감독이요?

김진성: 그래서 거기서 뭐 《어제 내린 비》도 했고 그런데 뭐 《병태와 영자》도 했고 뭐 하여튼
많이 했어. 내가 그러면서 한때는 또 영화 쪽에 내가 많이 빠졌었어. 그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이 취미에 맞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을 이제 한 거야.
방송 있으면서 틈틈이. 이제 나가서 일 도와주고 밤새도록 영어는 밤새도록 하잖아 믹싱
할 때.

김형준: 그렇죠

김진성: 밤새워서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쪽 했지.

김형준: 주로 그러니까 지구 오아시스보다는 좀 다른 회사들하고 음악 킹레코드라든지 또 아까 그 사장님이 하시던 레코드사 이름은 잘 모르지만.

김진성: 그거 알 거야 세 번 나올 거야.

김형준: 거기에서 이장희 씨랑 이렇게 소개해서 또 그런 가수들은 지구에서는 거의 안 나왔죠?

김진성: 지구나 오아시스에서 거의 안 나와. 지구 우리가 아는 남진 뭐 그런 거? 나훈아 그건 다 그쪽이 이미 다 이 쪽이잖아요. 성인 가수들. 그렇다고 내가 지구에서도 지구에서 내가 디렉팅을 많이 했어. 전속 가수 이미자 씨. 앨범 할 때 현미 씨. 앨범 녹음할 때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옛날 옛날 가수들 있잖아.

김형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구 아니면 오아시스더라고요 보니까.

김진성: 지구 걸 많이 해줬어.

김형준: 지구하고 오아시스가 왜 가수들 전속이었다가 이렇게 좀 당겨오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계약금 더 주고?

김진성: 그건 난 몰라.

김형준: 그 사장님들 두 분 다 지구하고 오아시스하고 다들 엘리트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다 서울대 출신?

김진성: 서울대 출신인 거 임 사장은 잘 모르겠어. 엘리트

김형준: 만나봤을 때 점잖고 그러신지 어떤?

김진성: 숫자 누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계산을 암산으로 이렇게이렇게 손으로 하면 대충 나오더라고. 그리고 정확해. 그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도 않고 딱 적게 주지도 않고 게 아주 적당하게.

김형준: 지구에 이동원 씨를 소개시켜 주셨을 때는 그러면 전속으로 소개시켜 주신 거였어요? 지구에서 앨범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김진성: 아니야 거기서 앨범 한 장 만드는 걸로.

김형준: 그럼 전속은 아니고 전속은 아니고 일종의 마이킹 같은 그런 건가요?

김진성: 마이킹도 아니고 제작비 정도 지원 받고 그 대신 내가 다 기획하고.

김형준: 결국은 그러면 이동원 씨를 지구에서 내긴 했지만 실질적인 제작자는 직접 하신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금 지원만 좀 받고 그렇죠?

김진성: 그제 《사랑의 꽃》이라는 타이틀로 앨범을 냈지.

김형준: 아까 김민기 씨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김민기 씨 제작하는 데 직접 참여한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또 일부 어디서 김민기 씨가 그랬는지 보면 약간 뭐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떻게?

김진성: 음악적으로는 김민기가 다 한 거지.

김형준: 음악적으로 자기 음악이니까?

김진성: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내가 눈꽃이니 뭐 몇 개 재즈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한 레파토리가 있어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바람 바람 뭐지? 모 하여튼 그 노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대수한테 뺏어가지고 한대수 내가 좀 쓴다 그리고 내가 기획을 했어. 기획을 다 했어 그래서 스튜디오도 내가 녹음까지 다 했어 저기 마장동 마장동 스튜디오에서 다 했으면 내가 프로듀서 아니야? 곡만 자기 곡이지. 자기가 연주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다는 거야. 약간 좀 이게 있어. 개가 그래서 그제 나를 고소를 했더라고. 그제 뭐냐 면은 그 앨범에 내가 프로듀서로 나왔거든.

김형준: 앨범 자켓이요? 자켓을?

김진성: 그래 거기서도 그랬어요. 이 앨범은 내가 제작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프로듀서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면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게 내게 아니냐 이걸 나하고 김민기 공동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음반에서 그걸 써먹으려고 그 앨범을 써먹으려고 이제 합본을 시키려고 그런 하려면 그걸 나를 고소해서 나를 배제시켜야 그걸 거기다 넣을 수 있게 했거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나도 알았어. 나는 그런 데는 관심 없다. 연연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쓴 거야. 개랑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이후로 개가 나를 고소했다는 게.

김형준: 그전에는 막역하셨어요.?

김진성: 막역하다 뿐이야? 내가 개한테 술값으로 쏟아 부은 돈, 내 돈 갖다 쓴 돈이 어딘데?

김형준: 인간적인 배신감이 크시겠네요?

김진성: 많이 컸지. 내가 개 때문에 진짜 가수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저기 뭐야? 저기 섬에 가서도 전화한 게 이장희. 울릉도 가서 전화해서 형 한번 안 와? 그래 가지고 내가 울릉도 한 번 갔는데, 그래도 나 부른 놈은 그놈밖에 없더라고.

김형준: 이장희 씨가 가장 의리가 있네요.

김진성: 개하고 같이 하숙도 같이 했으니까 젊었을 때.

김형준: 다른 아티스트들하고도 다 친하시고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세시봉》 영화에도 보면은 형님 이름도 언급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그 《트윈폴리오》라든지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도 또 다 그렇게 의리 있게 끝까지 막 그러진 않으신가 보죠?



사진4. 가요계의 새바람 대학가요제 기사(출처: 경향신문)

김진성: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친하게 지내. 단지 민기만 줘.

김형준: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좀 더 들어보고 싶기도 한 그런 얘기네요. 그 지구, 오아시스는 어쨌든 그렇게 몇 번 만나긴 하셨지만 같이 일을 막 할 정도의 그런 관계는 아니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 당시에 지구와 오아시스는 선배님이 하신 포크 음악 전성시대 이전까지는 거의 두 레코드사가 다 다 쥐고 있었던 거고 지방 행사도 그렇고 다 그랬겠네요?

김진성: 근데 거기 킹 레코드사하고 내가 틀어진 이유가 뭐냐면 《알라성(가시리)》이라는 노래 불렀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 대학가요제 있어 이름이 뭐였더라? 개를 내가 스카우트로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었어. 킹에서 내가 직접 제작을 한 거야. 그래서 킹에서 내는데 그 앨범 내자마자 그게 100만 장 이상 팔렸어. 근데 개가 그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가 교육학과를 나왔어. 그래 가지고 개가 서울에 있는 뭐 고등학교 선생으로 가게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

김형준: 100만 장 팔렸으면 엄청난 건데?

김진성: 보너스를 줘도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야?

김형준: 조금만 주더라도 100만 장이면?

김진성: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열 줘 받아가지고.

김형준: 너무 레코드에서 가수한테 준 게 없었나 보군요.

김진성: 너무 안 줬어. 아니, 처음에 받았지.

김형준: 처음에는 뭐, 계약금 같은 거? 선으로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세 같은 게 없었나 보네요?

김진성: 그때는 인세라는 게 없었어. 그냥 보너스로.

김형준: 많이 팔리면 그냥 알아서.

김진성: 수철이도 내가 신세계라고. 수철이를 처음에 수철이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세계 레코드 사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돈 이제 몇 백 만 원을 받아줬어. 처음에 앨범 내는 그래 거기서 내가지고 그게 또 100만 장 이상 팔렸는데 보너스를 안 주는 거야.

김형준: 신세계에서도요?

김진성: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대수 앨범 냈지. 거기서 그리고 수철이 거 냈지. 그리 내가지고 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틀어져가지고 다시는 거기서 이제 안 한다 가수도 소개 안 한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나쁜 놈들이 많아.

김형준: 아니 그럼 레코드사가 전체적으로 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악당이네요. 악당?

김진성: 거의 그런 악당들이지.

김형준: 가수들 이용해서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왕 서방이네요. 곰은 재주만 부리고 돈만 다 챙겨 먹는?

김진성: 그렇다고 뭐야? 저기 그렇다고 무슨 그 사람들이 나를 돈을 많이 준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참 내가 바보였어. 그게 맨날 거기 말했다시피 내가 그것만 일이 좋아가지고 열나게 도와주고.

김형준: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준 거네요?

김진성: 근데 나현구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해가지고 술도 같이 먹고 뭐 정말 나한테 거리낌 없이 했거든. 물론 내가 그 사람을 꼬시긴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킹박 보고 잘 해 먹어라 나간다. 그래가지고 안치행도 나가서 안치행, 자기 레코드 레이블 했고 안치행도 돈 많이 벌었지.

김형준: 형님도 프로듀서 제작자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많이 벌고 가수들도 좀 어느 정도 돈 벌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벌지 못하신 거네요?

김진성: 내가 돈 버는 거 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 그리고 뭐 술만 디립다 퍼먹어 가지고 몸만 망가지고

김형준: 헛 똑똑이셨네요?

김진성: 그 조용필을 이제 거기 킹박에서 키웠거든?

김형준: 그래요 조용필은 지구에서 쪽 나오지 않았었나요?

김진성: 킹박에서 시작했어.

김형준: 처음에 뭐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나오고 했던 게 지구에서 쪽 해서 나중에 거기도 저작권 소송 걸리고 뭐?

김진성: 아니 그건 거기 킹에서 먼저 냈어. 킹에서 데뷔 앨범 냈어. 그래 가지고 용필이두 인제 날 보고 개인적으로 막 부탁을 하는 거야. 자기 프로덕션 사장 해달라는 거야. 나는 그냥 예술이 좋아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지, 내가 그런 거 사장은 못한다 나 계산은 잘 못하니까.

김형준: 나중에 한참 될 때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김진성: 내가 돈 백까지 받을 정도로 개가 나를 신임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다가.

김형준: 조용필 씨는 처음 만나신 게 가수로 데뷔한 다음이예요?

김진성: 그렇지 일할 때. 그게 밥업소에서 일할 때 그룹사운드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지 그러면서 뭐 같이 술 마시면서 이제 같이 기획하고.

김형준: 선배님이 보실 때 지금 킹레코드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다 나눠주지도 않고 많이 벌었으면 좀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랬다는데 그런 예전 레코드사들이 어떤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안 좋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진성: 근데 그런 거 지금은 뭐 인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약할 때 아예 장당 얼마씩 그제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잘 났으면 좋겠어

김형준: 과거에는 그런 게 좀 너무 아쉬웠다는 거?

김진성: 너무 아쉬웠어.

김형준: 지금 그렇게 공룡처럼 굉장히 컸던 레코드사들이 지금은 온 데 간 데 없어 졌잖아요. 삭았어 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성: 그제그제 사필귀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진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제 예를 들어서, 뭐 그제 정당하게 세금 낼 거 내고 정당하게 인세 줄 거 주고 정당하게 자기네 버는 돈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벌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해 회사 체제로 해가지고.

김형준: 가수들이나 능력 있는 작곡가나 능력 있는 가수들이 다른 데랑 계약할 일이 없겠죠. 잘해주니까.

김진성: 없지. 잘해주니까. 이거 잘해주는데 누가 가겠어? 그렇지 않다보니까 좀 더 나은 조건에 기획사든 제작자든 이런 데로 이제 떠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기획사들이 기획을 함으로써 그제 하나씩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뀐 시대가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

김형준: 지금 방식은 이제 디지털화돼서 계약할 때 인세도 이제 주고 계약금 말고 부가로

주고 이런 거를 아마 기획사랑 가수들이 이제 할 텐데요. 예전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저작권도 이제 챙겨주고 근데 이제 크기로 보면 지금도 SM이다. YG, JYP다 해서 큰 대형 기획사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잖아요. 대형 기획사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구나 오아시스처럼 여기도 조금 잘못하면 다시 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김진성: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대해서 되지만 그것도 어느 팬가는 이제 자국에서, 자국에서 그 우수한 머리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일본은 일본 자국에서 그 레코드 소사이어티가 있던 말이야 거기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음악을 자꾸 기획을 하고 부흥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몰라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본은 튼튼하거든 미국도 음악적인 바탕이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그러한 바탕에서 그 나라들마다 그런 기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케이팝이라는 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변질될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엔 그렇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게 아주 없어지지도 않고 그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남겠지. 남겠지만 그것이 흥하지는 않을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나라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소위 민족적인 음악 민속적인 음악 이런 것들이 버무려 가지고 또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조금씩 변질돼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국악의 변질화 국악의 퓨전 얘기 퓨전이 지금 외국에서 자꾸 흥미를 갖고 있던 말이야.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데 흥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보면은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 음악이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 그래서 난 그 케이팝도 이게 지금 K팝이 지금 뭐 꼭 해봐야 BTS 정도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알려진 게 없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BTS도 지금 군대 간다니까.

김형준: 그럼 한 몇 년 공백이 있죠?

김진성: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형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김진성: 꺾일 수도 있는 게 꺾이게 되지. 그래서 그런 치고 올라오는 게 어떤 음악이 치고 올라오는지 그게 이제 이제 기세가 되는 거지.

김형준: 좀 전에 얘기하신 거 보서는 좀 한국적인 어떤 특성을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혹시 최근에 이 TV 프로그램에서

중편에서 주도하는 그런 트로트 열풍이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성: 곧 없어져. 지금도 벌써 사그러져. 일시적이야 트로트는 항상 일시적이야. 내가 트로트 쪽이 지금 현재 몸담고 있지만은 사실 뭐, 아이디어 낼 게 없어. 여기서는 뭐 그냥 새로운 인물 새로운 트로트 근데 그것도 이제 명이 다 했어.

김형준: 요즘은 굉장히 유행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김진성: 그것도 그 이 뭐야 임영웅, 이찬원 뭐. 그런 아이들 몇 있잖아. 지금 TV조선에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인기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임영웅은 벌써 발라드 가수라고 그러지 트로트도 안 나온다고. 개는 그리고 이제 TV 조선은 계약이 있으니까 나가는데 그거 외에는 안 나가거든. 그리고 김호중이는 자기가 성악가라고 안 될 거다 내가 보기에는 트로트 오래 못 간다.

김형준: 요즘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 젊은이 중에 좀 없어져요. 어렵고 밴드 음악하기 어렵고 또 시장도 없고 찾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가장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성: 우리나라가 유독 그게 심하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룹 음악에 그룹 음악이 지금 갈대로 다 간 거야 그룹의 음악의 최정상이 뭐냐면 이 환타지거든. 환타지가 뭔지 알지? 최정상이 마약이라고 말 대마초거든 거기가 최정상이야. 그거에 의해서 다 행해졌단 말이야 그럼 될 어떻게 해야지 그룹사운드들은 다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갔으면 이제 초기로 놔야 돼 초기 아주 진짜 이제 내가 진실되게 하는 음악 소위 예를 들어서 그룹사운드가 뿔뿔을 새롭게 한다거나 후 음악을 그룹 사운드를 자꾸 새롭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초기 음악으로 이렇게 변형돼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기만 올라가는데 올라갔으면 끝이잖아 거기 더 이상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런 초기 음악으로 변질시켜야 되는데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던 말이야 그걸 내가 누차 얘기 그룹사운드 하나 내 누구야 저 양병집이 죽기 전에 개가 아주 진짜 기타 잘 치는 놈을 데리고 다녔어 열 몇 살 먹은 놈인데 진짜 잘 쳐 개가 지금 보통 웬만하면 막 뭐 외국에서도 유명한 그룹 사운드 음악 아니면 연주를 안 했어 너 그렇게 하면 끝이다.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옛날 무슨 비틀스 초기 음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대중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조금씩 또 단계를 높여서 그렇게 가야지 그룹사운드가 되는 거지 그룹사운드가 없어지진 않아.

김형준: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죽어버려 가지고 음악 세계에서 좀 아쉬움이 좀 많죠. 왜냐 하면 플레이어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세션도 점점 없어지고 다 컴퓨터 음악만 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으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